

2009년 6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982조회)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お父さん！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私たちが、世の中で失敗したとしても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最後まで、私たちを見捨てない一人がいます。

그분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この方は、私たちが会うすべての人との関係の中で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분,
私たちに、希望の光をくれる方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私たちの父です。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お父さん！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

- 김홍식의《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중에서 -
- キム・ホンシクの＜私たちに一番重要なことは＞より -

*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 どんな難しい環境でも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支えになってくれる人がいます。

태산이 무너지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泰山が崩れ、台風が吹いても、揺れません。

바로 아버지입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まさに、父です。私とあなた、そして私たちの父・・・

그러나 그 아버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この父たちは、たくさん揺れています。

아버지에게도 지금 사랑이 필요합니다.
父にも今、愛が必要です。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お父さん！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

<メモ>

태산 [泰山]

[명사] 泰山。

<1> [명사] 中国山東省にある名山。

「ちりも積もれば山となる」の泰山かな??

티끌 모아 태산.【直訳:塵を集めて泰山.】

버팀-목 [一木]

20090629.txt

[명사] 支柱; つっかい(棒); つっぱり; 心張り棒。

そえ-ぎ [添(え)木·副(え)木]

1. [명사] (화초의) 받침대. 버팀목.

2. [명사] (골절 치료 때의) 부목.

2009년 6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1,057조회)

마중물
呼び水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上水道施設がよくない時節には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펌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地下水をくみ上げ使用するポンプがありました。

그러나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을 끌어올릴 수
しかしながら、そのままポンプ動かせば、水をくみ上げる

없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쯤 부어야 합니다.
できません。水をバガジ(ふくべを真っ二つに割り中身をくり抜いて干して作った容器)
くらい注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その1つのバガジの水を、呼び水といいます。

물을 얻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듯
水を得るために、呼び水を必要のように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私たちの人生も、何かを望めば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呼び水を、注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 김홍신의《인생사용설명서》중에서 -
- キム・ホンシンの〈人生の使用説明書〉 -

* 마중물은
* 呼び水は

버려지는 물이 아닙니다.
捨ててしまう水ではありません。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물도 아닙니다.
痕跡もなく、消えてしまう水でもありません。

단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땅속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ただ、1バガジの水だが、地中深く地下水をくみ上げ

핑핑핑 쏟아지게 하는 고맙고 귀한 처음물입니다.
ぽんぽんぽんと降り注ぐありがたく、貴重なはじめての水です。

사람 마음에도 그 처음물이 필요합니다
人の心にも、このような初めての水が必要です。

마음 속 깊은 곳에 잠긴 듯 고여 있는
心の中の深いところに、眠っているようなたまっている

사랑의 정수를 퍼올릴 수 있는.

愛の井戸水を救い上げることができる。

마중-물

[명사] 誘い水;呼び水。

상:수 [上水]

[명사] 上水;飲料とするため, 導管によって供給される清水。[반의어] 하수(下水)

끌:어-올리다

[타동사] 引き上げる。

바가지

<1> [명사] ふくべを真っ二つに割り中身をくり抜いて干して作った容器;パガジ。

<2> [명사] 水や酒などの液体を汲むのに使われる器の一つ。

흔적 [痕迹·痕跡]

[명사] 痕跡;跡形;跡;名残。

땅-속

[명사] 地下;地中。

어·뜻 검색결과 (1~8 / 총8건)

평

<1> [부사] 突然何かが破裂する音, またははじける音:ばあん。

<2> [부사] 大きな穴がぽかっと開いているさま:ぽっかり。[작은말] 팡 ⇒ 뽕2

쏟아-지다

<1> [자동사] (一度に多く)こぼれ落ちる;こぼれる;降り注ぐ;ほとぼしる。

<2> [자동사] (一度に多く)群がり来る;生じる;出てくる。

고이다 たまる

정수 [井水]

[명사] 井水;井戸水。

스くい-あげる [掬い上げる]

[하1단 활용 타동사] 떠올리다[퍼올리다]. 【문어형】 스くいあぐ {하2단 활용}

2009년 7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1,374조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안다
一番愛している人を一番よく知っている。

사랑하는 것과
愛すること

알게 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이다.
分かるようになることは、ほとんど同じです。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안다는 건
一番愛する人を、一番よく知っていることは、

분명한 사실이다.
明らかな事実です。

- 헤르만 헤세의《헤세의 사랑》중에서 -
- ヘルマン・ヘッセの〈ヘッセの愛〉より -

* 가장 잘 알기 때문에
* 一番よく分かっているので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一番よく理解できます。しかしながら、同時に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一番よく分かっているために、一番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多いです。

아는 만큼 더 챙겨보고 살펴볼 줄 알아야 하고,
知るほど、さらに準備して、見守っ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し

또 그만큼 덮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さらに、これ(準備したり見守ってあげる)ほどに蓋をしてあげることもで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챙기다

<1> [타동사] 取り纏める;取りそろえる;片付ける;始末する。

<2> [타동사] (食べ物)準備する;支度する。

덮다

<1> [타동사] 上から覆う;かぶせる。

<2> [타동사] 蓋をする。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ヘルマン・ヘッセ(Hermann Hesse, 1877年7月2日 - 1962年8月9日)は、ドイツの作家。主に詩と小説によって知られる20世紀前半のドイツ文学を代表する文学者である。風景や蝶々などの水彩画もよく描き、南ドイツの風物のなかでの穏やかな人間の生き方を画いた作品群の他に、ヘッセの絵を添えた詩文集は、今でも人気がある。1946年に『ガラス玉演戯』などの作品でノーベル文学賞を受賞した。

2009년 7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1,060조회)

결정적 순간
決定的瞬間

결정적 순간이란
決定的瞬間というのは

좋은 시간이나 올바른 시간,
いい時間も、正しい時間

혹은 행운의 순간입니다. 하나의 작품
あるいは、幸運の瞬間です。一つの作品

또는 소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また、小さな物が生まれるために必要なことは

의도도 아니고 타인의 명령은 더더욱 아니며,
意図ではなく、他人の命令はさらに違い

바로 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まさに、この決定的瞬間だ

- 헤르만 헤세의《헤세의 예술》중에서 -
- ヘルマン・ヘッセの「ヘッセの芸術」より -

* 꿈이 태어나는 순간,
* 夢が生まれる瞬間

어느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いつかこの夢がかなう瞬間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同じような夢を持った人に会う瞬間

인생에 다시 없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人生にまたとない、決定的瞬間です。

참 좋은 시간, 행운의 순간입니다.
とてもすばらしい時間、幸運の瞬間です。

올,-바르다

{형용사-르 불규칙 활용} 正しい;公平だ;正直だ。

あるいは [或いは]

《動詞「あり」의 連体形「ある」+副助詞「い」+係助詞「は」》

소:품 [小品]

[명사] 小品。

<1> [명사] 小さな品物。

탄:생 [誕生]

[명사·하다형 자동사] 誕生。

<1> [명사·하다형 자동사] 人が生まれること。

의:도 [意圖]

[명사] 意図。

<1> [명사] <하다형 타동사>あることをしよう, 実現しようとすること。

2009년 7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1,134조회)

“내 말을 귓등으로 흘려요”
“私の言葉を耳の後ろに流します(聞き流します)”

잘 듣는다는 것, '경청'의 문제는
よく聞くということ、'敬聴(謹んで聴くこと)'の問題は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아니라
父母と子供の間だけではなく

어른들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大人の間の関係にも重要な 이슈になる。

“남편이 제 말을 항상 귓등으로 흘려요.”
“旦那が私の言葉をいつも、聞き流します”

“아내는 내 말을 제대로 새겨듣는 법이 없습니다.”
“妻は私の言葉を、ちゃんと聞いたことがありません”

내가 참여하는 부부 워크숍에서 끊임없이
私が参加している夫婦ワークショップで途切れなく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繰り返される話です。

- 대니얼 고틀립의《마음에게 말걸기》중에서 -
- ダニエル・ゴットリーブの<心に言葉をかける>より -

* 상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 相手をとがめ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상대가 잘 들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相手が、ちゃんと聞いてくれることを望む前に

자기가 먼저 잘 들어주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自分自身がまず、よく聞いてあげれば、少しずつ変わっていきます。

그리고 도저히 흘려들을 수 없는 말만 해보는 것입니다.
そして、とても流すことのできない言葉だけに、してみることです。

“당신 멋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あなた、すてきだ”、“愛してる”、“ありがとう”、“ごめんなさい”

마음이 열려야 귀도 열리고 말문도 트입니다.
心を開いてこそ、耳も開いて、話の糸口も開きます。

흘리다

<1> [타동사] (汗や血などを)流す;零す。

<2> [타동사] (うっかりして水やご飯つぶなどを)漏らし落とす;零す。

경:청 [敬聴]

[명사·하다형 타동사] 謹んで聞くこと。

자녀 [子女]

[명사] 子女;息子と娘;子ども。

새기다

<1> [타동사] (字や絵を)刻む;彫る;彫りつける;彫り込む;切り付ける。

<2> [타동사] (心に)刻みつける;記す;銘じる。

허물을 탓하다. → 허물

とがを責める。

도:저-히 [到底-]

[부사] 到底;とても。

および [及び]

<1> [접속사] 《「及ぶ」의 連用形에서》 및. 과. 와.

<2> [명사] 《「~もつかない」「~もない」의 꼴로》 도저히 미치지 못하다.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

해:-보다 [害-]

[자동사] 害を受ける;損を被る。

트다

<1> [타동사] (塞がったものを)通じるようにする;開く。

<2> [타동사] 親しくする;気が置けない間柄になる;(取り引きなどを)始める。

대니얼 고틀립(Daniel Gottlieb)

ダニエル・ゴットリーブ

2009년 7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516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흥성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フンソ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찰떡궁합
最高の相性

연애할 때
恋愛するとき

여자는 소속감을 바라고
女性は、帰属意識を望み

남자는 소유욕을 드러낸다.
男性は、所有欲をさらけ出す。

역시 남녀는 궁합이
確かに、男女は相性が

잘 맞는 짝이 아닐 수 없다.
よく合う(お互いの)相棒に違いない。

한 쪽은 속하고 싶어하고
片方は、属したい

한 쪽은 갖고 싶어하니 말이다.
片方は、持ちたいからだ。

- 안은영의《사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중에서 -
- アン・ウンヨンの〈愛する前にわら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より -

* 알아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 わからなければならぬことは、さらにあります。

연애할 때와 결혼한 뒤에는 달라집니다.
恋愛するときと、結婚したあとには変わってきます。

여자가 오히려 소유욕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女性がむしろ、所有欲を持ち始め

남자는 소속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男性は、帰属意識から逃れようとします。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一部を除外して、大部分はこのようです。

이래저래 '찰떡궁합'입니다.
なんやかんやで'最高の相性'です。

좋은 글 주신 이흥성님께
いい文章を下さったイ・フンソンさま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찰-떡

[명사] もち米で作った餅。

궁합 [宮合]

[명사] (男女の)相性。

찰떡궁합 最高の相性

키-ぞくいしき [帰属意識]

[명사] 귀속 의식. 소속된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

소:유-욕 [所有慾]

[명사] 所有欲。

드러-내다

<1> [타동사] 表に出して示す;表わす;目立たせる;露にする;さらけ出す。

<2> [타동사] (名を世に)揚げる;とどろかす。

짚

[명사] 対の一方;組み[そろい]の一方。

아닐 수 없다. 違いない.

속-하다 [屬—]

{자동사·여 불규칙활용} 属する。

제외 [除外]

[명사·하다형 타동사] 除外;ある規定の範囲外に取り除くこと。

이래-저래

<1> [부사] どうやらこうやら;なんとかして。

<2> [부사] あれこれ;何やかやで。